

## 임플란트 보철 후 생기는 온갖 문제, 대비책은 없을까?

이 양 진 / 분당서울대병원 치과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합병증은 임플란트가 자연치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자연치와의 차이를 비교하며 자연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로 임플란트는 자연치가 일생을 통해 치열과 교합이 변하고 있는 동적인 환경에 끼어들어가는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자연치가 변하고 있을 때 임플란트가 인접 자연치와 주고받을 영향을 생각하고 악순환이 벌어질 고리는 끊어줘야 한다. 둘째,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환경은 원래 자연치의 환경과 비교하면 아주 불리하며 임플란트 자체도 자연치과 비교하면 불리한 조건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자연치에 비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교합은 임플란트의 기계적인 성질로 분산해야 하며 이것은 임플란트 수복물의 재료적 한계에 영향받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임플란트의 상식으로 알려진 일부 개념들이 사실은 오해였음을 인식하고 정리해야 한다.

부족한 치과의사의 인식은 진료 중 판단오류를 유발할 수 있고 환자의 유형파악, 교합양식 설정, 지대주 선택, 수복 방식, 수복 재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공사의 기공오류가 더해져 갖은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합병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차이 파악과 인식인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합병증을 나열하거나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데 중점을 두려 한다.

###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치과보철학 전공)
-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수련
-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Dentistry (UCHC) 방문 교수
- \* 현, 분당서울대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